

/지역 단신/

완도군 행정품질혁신 운동

완도군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업무능력 향상 등 행정품질혁신에 나섰...

이를 위해 군은 연구·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한편 우수 연구모임과 시책개발 우수 공무원에 해외배...

군은 행정품질혁신 첫 사업으로 이달부터 '직원사 이버 학습'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국내 e-러닝 산도업 체와 사이버 학습 이용계약을 체결해 리더십, 경영지...

군은 또 신규 직원의 공식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멘토링' 제도를 도입, 공식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 17명을 '멘토'로 위촉, 공식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장성 '푸른들 가꾸기' 확대 추진



장성군이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유기물 함량과 땅심을 높이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사진)'을 확대 추진한다.

장성군은 올해 녹비작물 파종면적을 지난해 보다 108ha 늘어난 3천870ha를 목표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파종시기로 설정했다.

군은 이를 위해 5억2천200만 원을 들여 자연연, 호밀, 헤어리베치, 클로버 녹비종자 281t을 구입해 9월 초까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 5천867호에 전량 무료 공급했다.

또 이달 초 파종기를 통한 군 단위 파종연습회를 개최하고 파종효과, 방법, 파종량, 사후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 읍면별로 파종 연습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성=고재민기자 jgbo@

특정마을에 '농산물 선별장' 잇단 건립

화순군 '특혜성 투자' 논란

화순군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마을에 '농산물 공동선별장'을 중복투자하고, 농산물 집하장 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

화순군은 지난 2003년 능주면 원지리 영농법인 명의로 50평 규모의 토마토 선별장을 만든데 이어, 2005년 토마토 선별 공동작업장 100여 평을 1억 1천여만 원 들여 다시 설치했다. 군은 또 1억5천여만 원 투입, 올 9월경 110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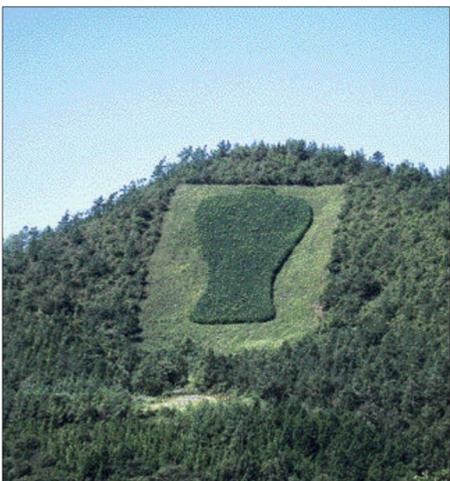
그러나 지난 2003년에 지어진 50여 평 규모의 농산물 선별장은 농자재가 쌓여 있고 유리창이 깨져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옆에 만들어진 공동작업장 역시 이용 실적이 없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은 지난해에도 파프리카 선별장이 2곳이나 있는 도곡면 효산리에 10여평을 투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는 이름으로 파프리카 선별장을 건립해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었다.

농산물 집하장 시설 역시 1994년 50평 건물에 3천500만 원 투자해 도곡면 능...

타리 법인 농산물 집하장을 시설했지만, 농가들의 느타리버섯재배 실패로 현재는 흉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주민 윤모씨는 "농촌이 농산물 수입 개방과 고품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마을에 중복투자하는 것은 심심행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어진 농산물 간이 집하장 중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은 노령인구로 인한 일손부족과 작목을 잘못 재배해 활용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상징 '청자동산'

청자의 고장 강진을 상징하는 '청자 동산'이 눈부신 가을 하늘아래 청자의 비색을 띠고있다. 강진군이 지난 2002년 강진을 사족 아산 경사면에 조성한 청자동산은 가로 63m, 세로 110m에 광나무 1만2천그루를 심어 만들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강진군청내 문화재연구소

지자체로는 최초...다산 문헌 등 연구

강진군이 자체단체로는 최초로 청사 내에 강진 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오후 개소식을 가진 강진 문화재연구소는 강진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은 물론 고문헌과 자료 등의 기록 정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조대 강진 문화재연구소장은 강진군 문화재 전문위원이자 전라남도 문화재위원인 양광식(58)씨가 임명됐다.

양 소장은 "강진지역 문화유적의 체계적 발굴·보존과 다산선생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성과 발표와, 결과물 간행, 군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강진군은 고려청자도요지와 다산초당, 영랑생가, 전라병영성, 백련사, 무위사 등 남도답사길 일련되게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영암 '무화과 에덴동산' 조성 추진

'프로젝트 컨설팅' 개최 무화과 관광상품화키로



영암 특산물인 무화과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영암 상호농협(조합장 김정식)은 최근 청사 회의실에서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강우식 도의원, 강찬원 군의원, 최기훈 농협군지부장, 재배농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무화과 에덴동산 프로젝트 컨설팅'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컨설팅에서 나현수 전남도청 담당관은 서서에 언급된 '에덴동산 무화과'를 문화관광 상품화하고 아담·이브와 서서 내음을 주제로 한 에덴동산 조성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일태 군수도 "무화과와 관련된 에덴동산 조성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화과 정보에 대한 홍보와 상품개발을 중심으로 품질과 저장성 향상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호농협은 '氣 담은 무화과'택배판매장을 개장, 5일부터 택배 판매를 개시했다. 문의 (061)462-6010 /영암=김현민기자 hnkim@

진도 서망항 시설개선 급하다

오징어 풍어로 외지어선 몰려

물양장 열악 장시간 대기 불편

서해안 어선 전진 기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진도 서망항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서망항은 꽃게잡이 어선은 물론 안강망, 유자망 어선에 최근에는 서해 풍어를 이룬 오징어 잡이 외지어선 등이 대거 몰리고 있다. 그러나 물양장 등 시설이 열악해 어선들이 위판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서망항은 꽃게와 활어 조기가 많이 잡...

히는 신안 흑산도와 만제도, 제주 추라도 등 황금어장 안입해 있는데다 목포항 등 다른 곳으로 입항할 때 보다 4시간 정도 더 걸려 기름값이 크게 절약돼 어종 어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물양장 등 접안시설이 태부족하고 방동창고, 얼음가공공장 등이 없어 어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 평균 30~40척의 오징어배까지 서망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물양장 부두가 고작 150여 m로 짧아 3~4척이 접안하면 다른 배들은 장시간 바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ark@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 신규 지정

장흥읍·관산읍·안양면 일대

한방진흥원·가공단지 등 건립

장흥군 장흥읍, 관산읍, 안양면 등 3개 읍면 일원 35만9천867㎡가 '정남진 장흥 생약초 한방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로 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9회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남진 장흥생약초 한방특구' 등 전국적으로 7개 특구를 새로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한방특구의 규제 특례사항으로는 생약초 생산지 집적화 및 대량 생산을 위...

한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허용, 특구의 독창적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조례로 제정) 등이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한방특구 지역에 전남의 한방산업을 총괄하는 ▲한방산업진흥원 ▲대단위 생산약초단지 및 제조·가공단지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사상의화제센터 ▲생약초를 활용한 아토피 치료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홍천기자 redplane@kwangju.co.kr

새 얼굴

'개성·재능 살리는 교육 구현'

곽영체 강진교육장



"꿈을 키워 미래에 도전할 줄 아는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신임 곽영체(59) 강진교육장은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됨의 교육, 특별 뛰는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학교 교육구현에 한 할의 맡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 태생인 곽교육장은 전남과학고교육원 연구사, 진도초등학교교장, 전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을 지냈으며 영광사 시절인 지난 1982년 전국과학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양희씨와 1남 1녀, 취미는 사진촬영. /강진=이병철기자 mood@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lla. Includes listings for '정우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신도시중개사', '국민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주)'.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location, and details about properties for sale or rent.